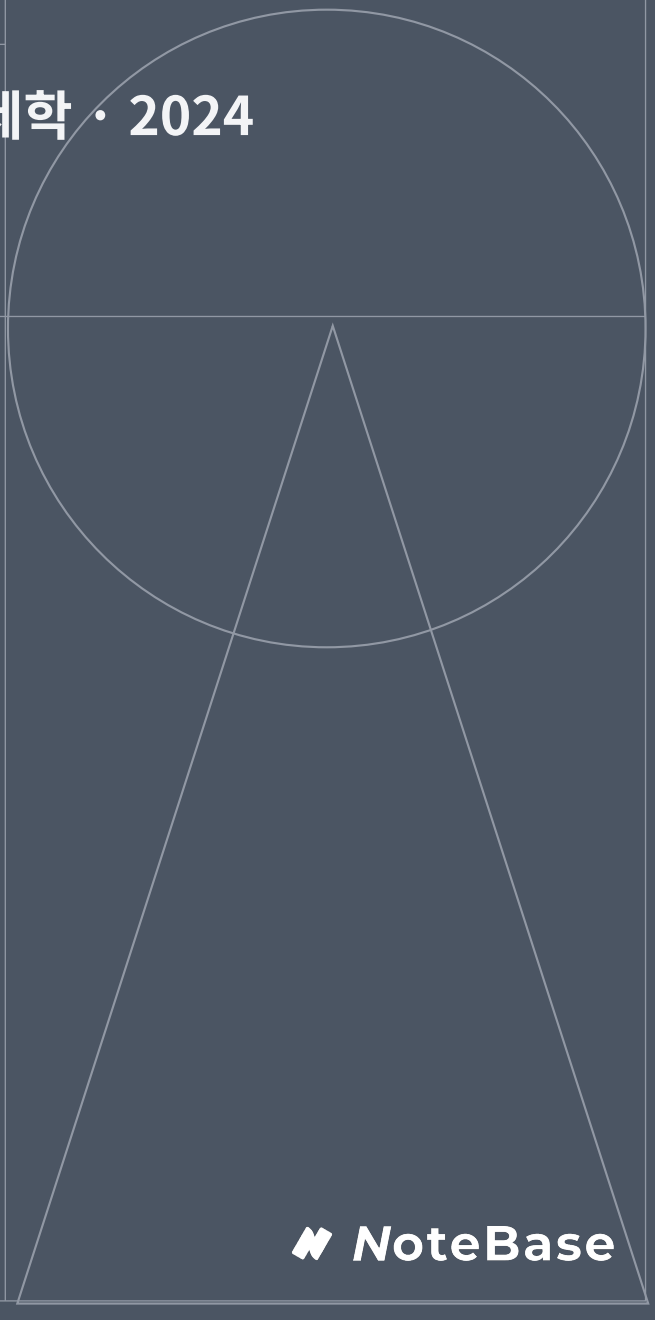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4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4

문 1.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정비용과 매몰 비용은 동일한 개념이다.

②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회계비용을 의미한다.

③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여러 대안의 가치 중에 가장 작은 가치이다.

④ 모든 대안들의 편익이 동일하다면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어떤 행위의 선택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미 지출된 매몰 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을 구분하고, 합리적 선택에서 어떤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회비용: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다른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대안의 가치이다. 결정 차이축은 '선택 때문에 새로 포기되는 가치'인지이다.
매몰 비용: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결정 차이축은 '현재 선택으로 회수하거나 바꿀 수 있는 비용'인지이다.
고정비용: 생산량이 변해도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매몰 비용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고정비용과 매몰 비용은 동일한 개념'이다.
-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일정한 비용이고,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올바르게는 고정비용과 매몰 비용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회계비용'이다.
- 기회비용은 선택 때문에 포기한 최선의 대안 가치이다. 실제 현금 지출인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③ X
- 틀린 부분은 '포기해야 하는 여러 대안의 가치 중에 가장 작은 가치'이다.
-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즉 차선의 대안 가치이다. 올바르게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해야 한다.

④ O
- 모든 대안의 편익이 동일하다면 선택의 차이는 비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동일한 편익을 얻는 대안들 중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X
- 틀린 부분은 '이미 지출된 매몰 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이다.
- 매몰 비용은 이미 발생했고 회수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합리적 선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앞으로 발생할 비용과 편익만 비교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여러 대안을 포기한다'는 말 때문에 평균값이나 최솟값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이다. ⑤는 이미 낸 돈이 아깝다는 심리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회비용은 '선택하지 못한 최선의 대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면 현재 선택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회비용은 포기한 최선, 매몰 비용은 버리고 판단이다.

NoteBase

문 2. 갑 기업이 하나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 구두(X재)와 핸드백(Y재)을 만들 때, 두 점(X재 생산량, Y재 생산량) A(10, 20)와 B(15, 18)가 갑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고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갑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으로 가능한 것은?

① (8, 21)

② (10, 18)

③ (15, 20)

④ (18, 15)

⑤ (21, 16)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가능곡선에서 기회비용 체증이 의미하는 기울기 변화를 이용해 가능한 점을 판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A(10, 20), B(15, 18)은 모두 갑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다.
구해야 할 값: 선택지 중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으로 가능한 좌표이다.
주의할 조건: 기회비용 체증은 X재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X재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양이 커진다는 뜻이다.

사용할 공식

A에서 B로 갈 때 X재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포기한 Y재늘어난 X재=(20-18)/(15-10)=(2)/(5)=0.4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두 점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으므로 두 점 사이의 평균적인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왼쪽 구간에서는 기회비용이 더 작고 오른쪽 구간에서는 기회비용이 더 커져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A(10, 20)에서 B(15, 18)로 이동하면 X재는 5 증가하고 Y재는 2 감소한다.
2. 따라서 이 구간에서 X재 1단위의 평균 기회비용은 $2/5 = 0.4$이다.
3. 기회비용 체증이면 X재 생산량이 15보다 큰 구간에서는 X재 1단위당 포기하는 Y재가 0.4보다 커져야 한다.
4. B(15, 18)에서 (18, 15)로 이동하면 X재는 3 증가하고 Y재는 3 감소하므로 기회비용은 $3/3 = 1$이다.
5. $1 > 0.4$이므로 (18, 15)는 기회비용 체증과 일치하는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 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8, 21)은 A보다 X재가 2 적고 Y재가 1 많다. (8, 21)에서 A(10, 20)로 이동할 때 X재 2 증가에 Y재 1 감소이므로 기회비용은 1/2 = 0.5이다. 이는 A에서 B로 갈 때의 기회비용 0.4보다 크므로, X재 생산량이 더 작은 구간에서 기회비용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되어 기회비용 체증에 어긋난다. 틀린 표현은 (8, 21)이며, 올바르게는 A보다 왼쪽의 점이라면 A-B 구간보다 작은 기회비용을 보여야 한다.
② X. (10, 18)은 A(10, 20)과 X재 생산량은 같지만 Y재 생산량이 2 적다. A가 이미 같은 X재 10에서 Y재 20을 생산하는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므로 (10, 18)은 비효율적인 내부점이지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10, 18)이며, 올바르게는 같은 X재 10에서는 A(10, 20)가 곡선상의 점이다.
③ X. (15, 20)은 B(15, 18)과 X재 생산량은 같지만 Y재 생산량이 2 많다. B가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라면 같은 X재 15에서 Y재 20을 생산하는 점은 B를 초과하므로 불가능하다. 틀린 표현은 (15, 20)이며, 올바르게는 같은 X재 15에서는 B(15, 18)가 곡선상의 점이다.
④ O. B(15, 18)에서 (18, 15)로 이동하면 X재는 3 증가하고 Y재는 3 감소한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3/3 = 1이고, 이는 A-B 구간의 기회비용 0.4보다 크다. X재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기회비용이 커지는 조건과 일치하므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으로 가능하다.
⑤ X. B(15, 18)에서 (21, 16)으로 이동하면 X재는 6 증가하고 Y재는 2 감소한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2/6 = 1/3으로 A-B 구간의 0.4보다 작다. X재 생산량이 더 큰 구간에서 기회비용이 오히려 감소하므로 기회비용 체증에 어긋난다. 틀린 표현은 (21, 16)이며, 올바르게는 B 오른쪽의 점이라면 B 이후 구간의 기회비용이 0.4보다 커져야 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단순히 X와 Y의 총량이 그럴듯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기회비용 변화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①은 왼쪽 구간인데 기회비용이 더 크고, ⑤는 오른쪽 구간인데 기회비용이 더 작아져서 모두 기회비용 체증과 반대이다. ②와 ③은 같은 X 생산량에서 이미 곡선상의 점 A 또는 B가 주어졌다는 지배 관계를 놓치게 만드는 선택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가능곡선에서 기회비용 체증 문제가 나오면 먼저 기준이 되는 두 점의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그다음 왼쪽 후보는 기준보다 작은 기회비용, 오른쪽 후보는 기준보다 큰 기회비용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같은 X 생산량에서 Y가 더 적으면 내부점이고, Y가 더 많으면 불가능한 점이다.

암기 포인트

기회비용 체증형 생산가능곡선에서는 X재가 많아질수록 곡선의 기울기 절댓값이 커진다.

NoteBase

문 3. 독점 시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없다.
ㄴ.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ㄷ. 한계수입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의 한계수입이 독점가격이 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시장에서 공급곡선의 존재 여부, 사회적 후생 손실, 한계수입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의 교차점이 의미하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기업의 공급곡선: 독점기업은 주어진 시장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가 아니므로 가격과 공급량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공급곡선이 없다.
사회적 후생 손실: 독점은 경쟁시장보다 산출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여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일부가 사라지는 사중손실을 만든다.
독점기업의 산출량 결정: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정해지고, 독점가격은 그 산출량에 대응하는 수요곡선 위의 가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도 옳다. 틀린 표현은 'ㄱ'만 고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을 함께 고른다.

② X
- ㄷ은 틀린 설명이고 ㄱ, ㄴ을 빠뜨렸다. 틀린 표현은 'ㄷ'이다. 올바르게는 한계수입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의 교차점의 한계수입은 독점가격이 아니라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정하는 기준이다.

③ O
- ㄱ은 옳다. 독점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공급곡선을 도출할 수 없다.
- ㄴ은 옳다. 독점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고 산출량은 경쟁시장보다 적어져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 ㄷ은 틀리므로 ㄱ, ㄴ만 고른 ③이 정답이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ㄱ도 옳은데 빠져 있다. 틀린 표현은 'ㄴ, ㄷ'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이다.

⑤ X
- ㄱ,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ㄱ, ㄴ, ㄷ'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만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ㄷ의 함정은 한계수입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의 교차점을 '가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 교차점은 산출량 결정점이고, 독점가격은 그 산출량에서 수요곡선을 올려 읽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 문제에서는 먼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교차점으로 산출량을 정하고, 그 산출량에서 수요곡선으로 가격을 정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독점기업은 가격수용자가 아니므로 경쟁기업처럼 공급곡선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은 공급곡선 없음, 후생손실 있음,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교차점은 가격이 아니라 산출량 결정점이다.

NoteBase

문 4. X재 시장의 수요 함수는 $Q_D = 100 - P$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P는 X재의 가격, Q_D는 X재의 수요량이다.)

<보기>

ㄱ. X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ㄴ. X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증가 함수이다.

ㄷ. X재의 수요량이 75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형 수요함수 $Q_D = 100 - P$에서 점 가격탄력성 공식을 이용해 탄력성의 크기와 변화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함수는 $Q_D = 100 - P$이다.
구해야 할 값: ㄱ, ㄴ, ㄷ 설명의 옳고 그름이다.
주의할 조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보통 절댓값으로 판단하므로 $dQ_D/dP = -1$의 부호를 제거해 크기를 비교한다.

사용할 공식

점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다.

$$E_d = \left|\frac{dQ_D}{dP} \cdot \frac{P}{Q_D}\right|$$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보기들이 특정 수요량에서의 탄력성 또는 가격 변화에 따른 탄력성 변화를 묻고 있으므로, 수요함수의 기울기와 해당 점의 P/Q_D를 함께 보아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Q_D = 100 - P$이므로 $dQ_D/dP = -1$이다.
2. 따라서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E_d = |-1 \cdot P/Q_D| = P/Q_D$이다.
3. 수요함수에서 $P = 100 - Q_D$이므로 $E_d = (100 - Q_D)/Q_D$이다.
4. 가격 기준으로 쓰면 $Q_D = 100 - P$이므로 $E_d = P/(100 - P)$이다.

선지 판단

① X
- ①은 ㄱ만 옳다고 보는 선택지이다. ㄱ의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E_d = P/(100 - P)$이므로 $P < 50$이면 비탄력적, $P = 50$이면 단위탄력적, $P > 50$이면 탄력적이다. 틀린 표현 "비탄력적이다" → 올바르게는 "가격 수준에 따라 비탄력적·단위탄력적·탄력적으로 달라진다"이다.

② O
- ②는 ㄴ만 옳다고 보는 선택지이다. ㄴ은 옳다. $E_d = P/(100 - P)$에서 가격 P가 커질수록 분자는 커지고 분모 $100 - P$는 작아지므로 가격탄력성은 증가한다.

③ X
- ③은 ㄱ, ㄷ이 옳다고 보는 선택지이다. ㄱ은 항상 비탄력적이라는 점에서 틀리고, ㄷ도 틀리다. $Q_D = 75$이면 $P = 25$이고 $E_d = 25/75 = 1/3$이므로 1이 아니다. 틀린 표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 올바르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3이다"이다.

④ X
- ④는 ㄴ, ㄷ이 옳다고 보는 선택지이다. ㄴ은 옳지만 ㄷ은 $Q_D = 75$에서 $E_d = 1/3$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ㄷ 포함" → 올바르게는 "ㄴ만 옳다"이다.

⑤ X
- ⑤는 ㄱ, ㄴ, ㄷ이 모두 옳다고 보는 선택지이다. ㄴ만 옳고 ㄱ과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틀린 표현 "ㄱ, ㄴ, ㄷ" → 올바르게는 "ㄴ"이다.

계산 결과 ㄴ만 옳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선형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가격탄력성을 혼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기울기 $dQ_D/dP = -1$은 일정하지만 탄력성 $E_d = P/Q_D$은 점마다 달라진다. 또한 $Q_D = 75$에서 수요량 75만 보고 단위탄력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먼저 $P = 25$를 구한 뒤 P/Q_D를 계산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수요함수의 탄력성 문제는 기울기 확인 → 해당 점의 P와 Q_D 확인 → $|dQ_D/dP| \cdot P/Q_D$ 계산 순서로 판단한다. 가격축 절편과 수량축 절편의 중간점에서는 단위탄력적이고, 그보다 가격이 낮은 구간은 비탄력적, 가격이 높은 구간은 탄력적이다.

암기 포인트

직선 수요곡선은 기울기는 일정해도 탄력성은 일정하지 않다. $Q_D = 100 - P$에서는 $E_d = P/Q_D$이고, 중간점 $(P, Q_D) = (50, 50)$에서만 탄력성이 1이다.

NoteBase

문 5.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 y는 각각 X재, Y재 소비량을 의미한다.)

① 두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② X재와 Y재 중 하나만 비재화라면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한다.

③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면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④ X재가 Y재의 완전 대체재라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일수록 더 낮은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 y) = 2x + y$라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므로 한계대체율은 일정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X재와 Y재만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 성질, 특히 교차 여부, 비재화, 원점에 대한 볼록성, 완전대체재의 효용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차별곡선: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주는 (x, y) 조합의 집합이다.
일반적인 재화의 무차별곡선: 더 많은 소비가 더 높은 효용을 주면 원점에서 멀수록 높은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곡선: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는 뜻이다.
완전대체재: 두 재화를 일정 비율로 서로 대체할 수 있어 무차별곡선이 직선이고 한계대체율이 일정하다.
비재화: 소비량이 늘수록 효용을 낮추는 재화이므로, 다른 좋은 재화를 더 받아야 같은 효용을 유지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이 교차하면 같은 소비묶음이 두 효용수준에 동시에 속하게 되어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두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② O

- X재와 Y재 중 하나만 비재화라면 비재화 소비가 늘 때 같은 효용을 유지하려면 다른 재화 소비도 늘어야 한다. 따라서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한다.

③ O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X재 소비가 늘수록 Y재를 포기하려는 비율인 한계대체율이 작아진다는 뜻이다. 즉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일수록 더 낮은 효용 수준"이다. X재가 Y재의 완전대체재라도 두 재화가 모두 좋은 재화이면 더 많이 소비하는 방향, 즉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⑤ O

- 효용함수가 $U(x, y) = 2x + y$이면 같은 효용수준 $\bar{U}$에서 $y = \bar{U} - 2x$가 되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2이다. 따라서 한계대체율도 일정하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이 직선이라는 사실과 효용수준의 높낮이를 혼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직선 모양이어도 좋은 재화라면 원점에서 멀수록 더 많은 소비묶음이므로 효용수준은 높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차별곡선 문제에서는 먼저 두 재화가 좋은 재화인지 비재화인지 판단하고, 그다음 곡선의 모양과 효용수준의 방향을 구분한다. 좋은 재화끼리는 원점에서 멀수록 고효용, 한 재화가 비재화이면 우상향, 완전대체재이면 직선, 볼록하면 한계대체율 체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좋은 재화의 무차별곡선은 멀수록 고효용, 완전대체재는 직선, 볼록성은 한계대체율 체감이다.

NoteBase

문 6. 다음은 축구복, 축구화, 축구공에 대한 고객 A, B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판매업자인 갑은 가격차별 없이 해당 상품을 따로 판매하거나 묶어 파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한다. 묶어 파는 전략을 선택한 경우, 축구복과 묶어 팔 때가 따로 팔 때보다 판매 수입이 더 큰 묶음 판매 조합과 이때 얻을 수 있는 최대 판매 수입으로 옳은 것은?

구분	최대 지불 용의 금액(만 원)		
	축구복	축구화	축구공
고객 A	10	15	4
고객 B	15	20	2

① 묶음 판매 조합: (축구복, 축구공), 최대 판매 수입: 28

② 묶음 판매 조합: (축구복, 축구공), 최대 판매 수입: 24

③ 묶음 판매 조합: (축구복, 축구화), 최대 판매 수입: 60

④ 묶음 판매 조합: (축구복, 축구화), 최대 판매 수입: 25

⑤ 묶음 판매 조합: (축구복, 축구화), 최대 판매 수입: 14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두 고객의 최대 지불용의를 이용해 개별판매 수입과 순수 묶음판매 수입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고객 A의 지불용의는 축구복 10, 축구화 15, 축구공 4이고, 고객 B의 지불용의는 축구복 15, 축구화 20, 축구공 2이다.
구해야 할 값: 축구복과 함께 묶어 팔 때 따로 팔 때보다 판매 수입이 더 큰 묶음 조합과 그 최대 판매 수입이다.
주의할 조건: 가격차별이 없으므로 한 상품이나 한 묶음에는 하나의 가격만 붙일 수 있다.

사용할 공식

개별판매의 최대 수입은 각 상품별로 가능한 단일가격의 수입 중 큰 값을 더한다.
묶음판매의 최대 수입은 각 고객의 묶음 지불용의를 구한 뒤, 가능한 단일 묶음가격의 수입 중 큰 값을 고른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판매업자는 고객별로 다른 가격을 받을 수 없고, 따로 팔거나 묶어 파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축구복+축구공을 따로 팔 때: 축구복은 가격 10이면 두 명에게 팔아 20, 가격 15이면 한 명에게 팔아 15이므로 최대 20이다. 축구공은 가격 2이면 두 명에게 팔아 4, 가격 4이면 한 명에게 팔아 4이므로 최대 4이다. 따라서 따로 팔 때 최대 수입은 24만 원이다.
2. 축구복+축구공을 묶어 팔 때: 고객 A의 묶음 지불용의는 10+4=14, 고객 B의 묶음 지불용의는 15+2=17이다. 가격 14이면 두 명에게 팔아 28, 가격 17이면 한 명에게 팔아 17이므로 최대 수입은 28만 원이다. 따라서 묶음판매가 따로 판매보다 크다.
3. 축구복+축구화를 따로 팔 때: 축구복 최대 수입은 20, 축구화는 가격 15이면 두 명에게 팔아 30, 가격 20이면 한 명에게 팔아 20이므로 최대 30이다. 따로 팔 때 최대 수입은 50만 원이다.
4. 축구복+축구화를 묶어 팔 때: 고객 A의 묶음 지불용의는 25, 고객 B의 묶음 지불용의는 35이다. 가격 25이면 두 명에게 팔아 50, 가격 35이면 한 명에게 팔아 35이므로 최대 수입은 50만 원이다. 따로 판매보다 크지 않다.
5. 축구화+축구공은 축구복과 묶는 조합이 아니므로 문제의 조건인 '축구복과 묶어 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O - 축구복+축구공은 묶음 지불용의가 A 14, B 17이므로 가격 14에서 두 명에게 판매해 28만 원을 얻는다. 따로 팔 때의 24만 원보다 크므로 옳다.
② X - 축구복+축구공 조합은 맞지만 최대 판매 수입 24가 틀렸다. 24만 원은 따로 팔 때의 최대 수입이고, 묶음판매의 최대 수입은 28만 원이다. 틀린 표현 '24'는 올바르게는 '28'이다.
③ X - 축구복+축구화는 묶음판매 최대 수입이 50만 원이고 따로 판매 최대 수입도 50만 원이다. 따로 팔 때보다 판매 수입이 더 큰 조합이 아니며, 60만 원도 나올 수 없다. 틀린 표현 '(축구복, 축구화), 60'은 올바르게는 '(축구복, 축구공), 28'이다.
④ X - 축구복+축구화의 묶음 가격을 25로 두면 두 명에게 판매되어 50만 원이 된다. 25만 원은 판매 수입이 아니라 고객 A의 묶음 지불용의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25'는 올바르게는 '50'이고, 정답 조합 기준으로는 '(축구복, 축구공), 28'이다.
⑤ X - 축구복+축구화 조합은 따로 판매보다 수입이 더 크지 않다. 또한 14만 원은 축구복+축구공에 대한 고객 A의 묶음 지불용의일 뿐 최대 판매 수입이 아니다. 틀린 표현 '(축구복, 축구화), 14'는 올바르게는 '(축구복, 축구공), 28'이다.
계산 결과 축구복+축구공을 묶어 팔 때 최대 판매 수입은 28만 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고객의 묶음 지불용의와 판매 수입을 혼동하는 것이다. 14와 25는 특정 고객의 지불용의이지 판매 수입이 아니다. 또한 축구복+축구화는 묶음판매 수입이 50만 원으로 따로 판매 수입 50만 원과 같으므로 '더 큰' 경우가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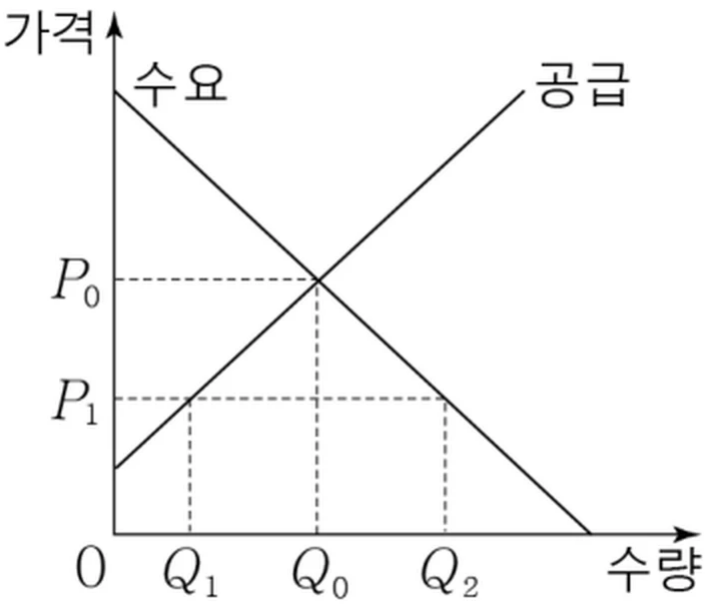
묶음판매 문제는 각 조합별로 고객별 묶음 지불용의를 먼저 더하고, 그 가격에서 몇 명이 사는지를 곱해 묶음 수입을 계산한 뒤, 같은 상품들을 따로 팔 때의 최대 수입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묶음판매 수입은 '묶음가격 × 구매자 수'이고, 특정 고객의 지불용의 자체가 판매 수입은 아니다.

NoteBase

문 7. 다음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 정부는 P_1에서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격 규제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② 가격 규제 정책 시행 전에 비해 $Q_2 - Q_0$만큼 시장 거래량이 증가한다.

③ 가격 규제 정책 시행 후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④ 가격 규제 정책 시행 후에 공급의 감소가 발생하면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⑤ 최저임금제는 해당 가격 규제 정책의 사례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공급 그래프에서 균형가격보다 낮은 유효한 가격 규제, 즉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읽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규제가격 P_1이 균형가격 P_0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한다.
2. P_1에서 공급량은 Q_1, 수요량은 Q_2라는 점을 읽는다.
3. 실제 거래량은 더 작은 쪽인 공급량 Q_1로 결정되고, $Q_2 - Q_1$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자료에서 $P_1 < P_0$이므로 유효한 가격상한제가 시행된 상황이다. 가격상한제 아래에서는 가격이 낮아져 수요량은 늘지만 공급량은 줄고, 실제 거래량은 공급량 Q_1에 묶인다. 따라서 기존 균형거래량 Q_0보다 거래량은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도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근거 위치: P_1에서 공급곡선이 만나는 수량은 Q_1이고, 이는 기존 균형거래량 Q_0보다 작다.
- 가격이 P_0에서 P_1로 낮아지고 실제 판매량도 Q_0에서 Q_1로 줄어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② X
- 근거 위치: 규제 전 실제 거래량은 Q_0, 규제 후 실제 거래량은 공급량 Q_1이다.
- 틀린 표현: "$Q_2 - Q_0$만큼 시장 거래량이 증가한다."
- 올바르게는 규제 후 실제 거래량은 Q_1이므로 시장 거래량은 $Q_0 - Q_1$만큼 감소한다. $Q_2 - Q_0$은 수요량 증가분일 뿐 실제 거래량 증가분이 아니다.

③ X
- 근거 위치: P_1에서 수요량은 Q_2, 공급량은 Q_1이다.
- 틀린 표현: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 올바르게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므로 $Q_2 - Q_1$만큼 초과수요, 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④ X
- 근거 위치: P_1에서 실제 거래량은 공급량으로 제한된다.
- 틀린 표현: "공급의 감소가 발생하면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 올바르게는 공급 감소는 같은 규제가격에서 공급량을 더 줄여 실제 거래량을 감소시키므로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구매 가능한 수량이 줄어 소비자잉여는 감소하는 방향이다.

⑤ X
- 근거 위치: P_1은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 규제이다.
- 틀린 표현: "최저임금제는 해당 가격 규제 정책의 사례이다."
- 올바르게는 이 그래프의 정책은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제의 사례이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될 때 유효한 가격하한제의 사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Q_2를 실제 거래량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가격상한제에서는 수요자가 Q_2만큼 사고 싶어도 공급자가 Q_1만큼만 공급하므로 실제 거래량은 Q_1이다. 또한 균형가격보다 낮은 규제는 초과공급이 아니라 초과수요를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규제가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최고가격제,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최저가격제이다. 최고가격제에서는 실제 거래량을 공급량으로 잡고,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를 초과수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효한 최고가격제는 낮은 가격, 공급량 감소, 실제 거래량 감소, 초과수요 발생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8. 소비자가 X재를 x만큼 소비하고 Y재를 y만큼 소비할 때의 효용함수가 $U(x,y)=\sqrt{x}+\sqrt{y}$이다. 예산이 600이고 X재의 가격이 40, Y재의 가격이 20일 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X재의 양은 5이다.

② 예산이 2배로 증가하면 최적의 소비점에서 소비자 효용도 증가한다.

③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에서의 한계대체율은 2이다.

④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X재의 양과 Y재의 양의 합은 25이다.

⑤ 예산이 증가하면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에서의 한계대체율도 증가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계효용 대비 가격 조건과 예산제약식을 이용해 효용극대화 소비점과 그 지점의 한계대체율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효용함수는 $U(x,y)=\sqrt{x}+\sqrt{y}$이다.
예산은 600, X재 가격은 40, Y재 가격은 20이므로 예산제약식은 $40x+20y=600$, 즉 $2x+y=30$이다.
구해야 할 값은 효용극대화 소비량 (x,y), 그 지점의 한계대체율, 예산 증가 시 한계대체율의 변화 여부이다.

사용할 공식

한계효용은 $MU_x=\frac{1}{2\sqrt{x}}$, $MU_y=\frac{1}{2\sqrt{y}}$이다.
내부해의 효용극대화 조건은 $\frac{MU_x}{P_x}=\frac{MU_y}{P_y}$이다.
한계대체율은 $MRS_{xy}=\frac{MU_x}{MU_y}=\sqrt{\frac{y}{x}}$ 이다.
두 재화를 모두 소비하는 내부해에서는 소비자가 지출 1원당 한계효용을 같게 만들 때 효용이 극대화되므로 이 조건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효용극대화 조건에 가격을 대입하면 $\frac{1/(2\sqrt{x})}{40}=\frac{1/(2\sqrt{y})}{20}$이다.
2. 이를 정리하면 $\frac{1}{80\sqrt{x}}=\frac{1}{40\sqrt{y}}$, 따라서 $40\sqrt{y}=80\sqrt{x}$이고 $\sqrt{y}=2\sqrt{x}$이다.
3. 양변을 제곱하면 $y=4x$이다.
4. 예산제약식 $2x+y=30$에 $y=4x$를 대입하면 $2x+4x=30$, $x=5$, $y=20$이다.
5. 최적점의 한계대체율은 $MRS_{xy}=\sqrt{20/5}=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효용극대화 조건과 예산제약식을 함께 풀면 $x = 5, y = 20$이므로 X재의 양은 5이다.

② O
예산이 2배가 되면 예산제약식은 $2x + y = 60$이 되고, 최적 비율 $y = 4x$는 유지된다. 따라서 $x = 10, y = 40$이 되어 효용은 $\sqrt{10} + \sqrt{40} = 3\sqrt{10}$으로 기존 $3\sqrt{5}$보다 증가한다.

③ O
최적점 $(5, 20)$에서 한계대체율은 $MRS_{xy} = \sqrt{20/5} = 2$이다. 내부 최적점에서는 $MRS_{xy} = P_x/P_y = 40/20 = 2$로도 확인된다.

④ O
효용극대화 소비점은 $(x, y) = (5, 20)$이므로 X재와 Y재의 양의 합은 $5 + 20 = 25$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예산이 증가하면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에서의 한계대체율도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가격비가 그대로이면 예산이 증가해도 내부 최적점의 한계대체율은 $P_x/P_y = 2$로 일정하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예산 증가가 소비량과 효용을 증가시키는 사실을 한계대체율 증가로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 효용함수에서는 예산이 늘면 최적 소비량은 같은 비율로 커지지만, 가격비가 변하지 않는 한 내부 최적점의 한계대체율은 가격비와 같은 2로 유지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극대화 계산형 문제는 한계효용을 구한 뒤 $MU_x/P_x = MU_y/P_y$로 두 재화의 최적 소비비율을 먼저 찾고, 그 다음 예산제약식에 대입해 수량을 계산한다. 예산만 변하고 가격비가 그대로이면 내부 최적점의 한계대체율은 가격비와 같아져 그대로 유지된다.

암기 포인트

내부 최적점에서는 $MRS = P_x/P_y$이다. 예산 변화는 소비량과 효용을 바꾸지만, 가격비가 그대로이면 최적점의 MRS는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9.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단기 비용 함수가 $C = 450 + Q^2$, 시장 가격이 30일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C는 비용, Q는 생산량이다.)

<보기>

ㄱ.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조업을 중단한다.

ㄴ. 기업의 생산수준은 15이다.

ㄷ.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이윤극대화 조건 $P = MC$와 조업중단 조건을 이용해 생산량, 손실 여부, 가변비용 충당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비용함수 $C = 450 + Q^2$, 시장가격 $P = 30$이다.
구해야 할 값: 이윤극대화 생산량, 조업중단 여부, 총수입과 가변비용의 관계이다.
주의할 조건: 450은 고정비용이고 Q^2은 가변비용이다. 단기에는 손실이 나더라도 가격이 평균가변비용 이상이면 생산을 계속한다.

사용할 공식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 = MC$이다.
한계비용은 $MC = \frac{dC}{dQ} = 2Q$이다.
총수입은 $TR = P \times Q$, 가변비용은 $VC = Q^2$, 평균가변비용은 $AVC = \frac{VC}{Q} = Q$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한계수입 MR이 가격 P와 같고,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MR = MC$, 즉 $P = MC$에서 결정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한다.

$30 = 2Q$

$Q = 15$

2. 총수입과 비용을 계산한다.

$TR = 30 \times 15 = 450$

$TC = 450 + 15^2 = 675$

$\pi = TR - TC = 450 - 675 = -225$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다.

3. 조업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VC = 15^2 = 225$

$AVC = \frac{225}{15} = 15$

가격 $P = 30$이 평균가변비용 $AVC = 15$보다 크므로 기업은 가변비용을 충당하고 고정비용 일부도 회수한다.

따라서 손실이 있어도 조업을 계속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ㄱ. X
손실은 발생하지만 조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조업을 중단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크므로 조업을 계속한다"이다.

ㄴ. O
$P = MC$에서 $30 = 2Q$이므로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수준은 $Q = 15$이다.

ㄷ. O
총수입은 450, 가변비용은 225이므로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조업중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X
ㄱ만 옳다는 선택지이지만 ㄱ은 틀리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② X
ㄴ만 옳다는 선택지이지만 ㄷ도 옳다. 총수입 450이 가변비용 225보다 크다.

③ X
ㄱ, ㄷ이 옳다는 선택지이지만 ㄱ은 틀리다. 손실 여부와 조업중단 여부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④ O
ㄴ과 ㄷ이 모두 옳고 ㄱ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다.

⑤ X
ㄱ, ㄴ, ㄷ이 모두 옳다는 선택지이지만 ㄱ이 틀리다. 손실이 있어도 $P \geq AVC$이면 단기 조업은 계속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손실 발생"을 곧바로 "조업 중단"으로 연결하게 만드는 점이다. 단기 조업중단은 이윤이 음수인지가 아니라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지로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P = 30$, $AVC = 15$이므로 손실은 나지만 생산을 계속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기업 문제는 먼저 $P = MC$로 생산량을 구하고, 그다음 TR, VC, TC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손실 여부는 $TR - TC$로, 조업중단 여부는 P와 AVC 비교로 따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생산량은 $P = MC$, 단기 조업중단은 $P < AVC$이다. 손실이 나도 $P \geq AVC$이면 생산을 계속한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과점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A와 기업 B의 전략 1, 2에 따른 성과보수 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 A와 기업 B 간에 담합이 없다면 우월 전략 균형에서의 조합(기업 A의 보수, 기업 B의 보수)으로 옳은 것은?

구분		기업 B	
		전략 1	전략 2
기업 A	전략 1	(10, 20)	(15, 4)
	전략 2	(4, 15)	(4, 10)

① (10, 20)

② (15, 4)

③ (4, 15)

④ (4, 10)

⑤ (10, 1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담합이 없는 과점시장에서 각 기업의 우월전략을 찾고, 두 기업의 우월전략이 만나는 보수 조합을 고르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업 A와 기업 B의 전략 1, 전략 2에 따른 보수행렬이다.
구해야 할 값: 우월전략 균형에서의 조합, 즉 기업 A의 보수와 기업 B의 보수이다.
주의할 조건: 보수쌍은 항상 (기업 A의 보수, 기업 B의 보수) 순서로 읽는다.

사용할 공식

우월전략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에게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이다.
이 원리를 쓰는 이유: 담합이 없다는 조건에서는 두 기업이 각자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하므로, 각 기업의 우월전략을 따로 비교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업 A의 선택을 비교한다. B가 전략 1을 택하면 A의 보수는 A 전략 1에서 10, A 전략 2에서 4이므로 A는 전략 1을 선택한다. B가 전략 2를 택하면 A의 보수는 A 전략 1에서 15, A 전략 2에서 4이므로 A는 전략 1을 선택한다.
2. 따라서 기업 A의 우월전략은 전략 1이다.
3. 기업 B의 선택을 비교한다. A가 전략 1을 택하면 B의 보수는 B 전략 1에서 20, B 전략 2에서 4이므로 B는 전략 1을 선택한다. A가 전략 2를 택하면 B의 보수는 B 전략 1에서 15, B 전략 2에서 10이므로 B는 전략 1을 선택한다.
4. 따라서 기업 B의 우월전략은 전략 1이다.
5. 두 기업 모두 전략 1을 선택하므로 우월전략 균형은 (A 전략 1, B 전략 1)이고, 그 보수 조합은 (10, 20)이다.

선지 판단

① O
- (10, 20)은 A 전략 1과 B 전략 1이 만나는 칸의 보수이다. A와 B 모두 전략 1이 우월전략이므로 우월전략 균형의 보수 조합과 일치한다.

② X
- (15, 4)는 A 전략 1, B 전략 2의 보수이다. 틀린 표현은 'B 전략 2'에 해당하는 조합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B도 전략 1을 선택하므로 (10, 20)이 된다.

③ X
- (4, 15)는 A 전략 2, B 전략 1의 보수이다. 틀린 표현은 'A 전략 2'에 해당하는 조합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A도 전략 1을 선택하므로 (10, 20)이 된다.

④ X
- (4, 10)은 A 전략 2, B 전략 2의 보수이다. 틀린 표현은 두 기업이 모두 전략 2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두 기업이 모두 전략 1을 선택하므로 (10, 20)이 된다.

⑤ X
- (10, 10)은 보수행렬에 실제로 존재하는 칸의 보수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우월전략 균형 보수를 임의로 같은 값처럼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행렬의 (A 전략 1, B 전략 1) 칸인 (10, 20)이 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사회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조합이나 두 기업의 보수를 비슷하게 만드는 조합을 고르는 데 있다. 우월전략 균형은 공동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각 기업이 상대방의 선택과 무관하게 더 높은 보수를 얻는 전략의 교차점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월전략 문제는 먼저 한 기업의 보수만 세로 또는 가로로 비교하고, 그다음 다른 기업의 보수만 비교한다. 각 기업의 우월전략이 하나씩 정해지면 두 전략이 만나는 칸의 보수쌍을 (앞 기업의 보수, 뒤 기업의 보수) 순서로 읽는다.

암기 포인트

우월전략 균형은 '상대가 무엇을 하든 내게 더 좋은 전략'들의 교차점이다. 보수쌍의 첫째 숫자는 기업 A, 둘째 숫자는 기업 B의 보수이다.

NoteBase

문 11. 공공재에 대한 갑과 을의 한계편익 곡선은 각각 $P = 10 - Q$, $P = \frac{15 - Q}{2}$이다.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10일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① 4

② 5

③ 6

④ 7

⑤ 8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할 때 개인별 한계편익을 수직합산하여 사회적 한계편익을 만들고, 이를 한계비용과 같게 놓는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개인별 공공재 한계편익 곡선은 각각 $P = 10 - Q$, $P = \frac{15 - Q}{2}$이고,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은 10이다.
구해야 할 값: 사회적 최적 공공재 생산량 Q이다.
주의할 조건: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므로 각 수량에서의 한계편익을 더한다. 따라서 수요량을 더하는 사적재의 수평합이 아니라 가격 또는 한계편익의 수직합을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sum MB_i = MC$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으므로, 사회가 얻는 추가 편익은 각 개인의 한계편익을 모두 합한 값이다.

계산 과정

1. 두 개인의 한계편익을 합한다.
$SMB = (10 - Q) + \frac{15 - Q}{2} = \frac{35 - 3Q}{2} = 17.5 - 1.5Q$
2. 사회적 한계편익을 한계비용 10과 같게 둔다.
$17.5 - 1.5Q = 10$
3. 방정식을 풀면 $7.5 = 1.5Q$, 따라서 $Q = 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4는 사회적 한계편익을 한계비용 10과 같게 놓아 풀었을 때의 값이 아니다. 틀린 표현 4 → 올바르게는 5이다.

② O
-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10-Q)+\frac{15-Q}{2}$이고, 이를 한계비용 10과 같게 두면 $Q=5$가 된다.

③ X
- 6을 대입하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10-6)+\frac{15-6}{2}=4+4.5=8.5$로 한계비용 10보다 작다. 틀린 표현 6 → 올바르게는 5이다.

④ X
- 7을 대입하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10-7)+\frac{15-7}{2}=3+4=7$로 한계비용 10보다 작아 과다 생산이다. 틀린 표현 7 → 올바르게는 5이다.

⑤ X
- 8을 대입하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10-8)+\frac{15-8}{2}=2+3.5=5.5$로 한계비용 10보다 작아 사회적 최적량이 아니다. 틀린 표현 8 → 올바르게는 5이다.

계산 결과 5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공공재 수요를 사적재처럼 수평합산하는 실수이다. 공공재는 같은 Q를 모두가 함께 소비하므로 수량을 더하지 않고, 각 Q에서의 지불의사 또는 한계편익을 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 최적 공급 문제는 개인별 한계편익을 먼저 수직합산하고, 사회적 한계편익 SMB와 한계비용 MC이 같아지는 Q를 찾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한계편익의 수직합, 사적재는 수요량의 수평합이다. 공공재 최적 조건은 $\sum MB = MC$이다.

NoteBase

문 12. 양식장 A의 한계비용은 $10x + 70$만 원, 고정비용은 15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입는 한계피해액은 $5x$만 원이고, 양식장 A의 한계편익은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 정부가 생산 1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할 때 1단위당 세금은 얼마인가? (단, x는 양식량이며, 소비 측면의 외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① 5만 원

② 10만 원

③ 15만 원

④ 20만 원

⑤ 30만 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정적 생산 외부효과가 있을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하고, 그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를 단위당 세금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양식장 A의 한계비용은 $MC = 10x + 70$만 원, 고정비용은 15만 원, 한계피해는 $MD = 5x$만 원, 한계편익은 $MB = 100$만 원이다.
구해야 할 값: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하는 생산 1단위당 세금이다.
주의할 조건: 고정비용은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과 단위당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부정적 생산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과 한계피해의 합이다.
$SMC = MC + MD$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정해진다.
$MB = SMC$
교정세의 단위당 세금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와 같다.
$t = MD(x^*)$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수질오염은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는 외부비용이므로, 정부는 한계피해만큼의 세금을 부과해 사적 의사결정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게 만든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사회적 한계비용을 구한다.

$SMC = (10x + 70) + 5x = 15x + 70$

2. 사회적 최적 생산량 x^*를 구한다.

$100 = 15x + 70$

$15x = 30$

$x^* = 2$

3.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를 구한다.

$t = MD(2) = 5 \times 2 = 10$

따라서 생산 1단위당 세금은 10만 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5만 원은 한계피해 함수 $5x$의 계수만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5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최적 생산량 $x^* = 2$를 대입한 10만 원이다.

② O

-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00 = 15x + 70$에서 $x^* = 2$이고, 이때 한계피해는 $5 \times 2 = 10$만 원이다. 따라서 10만 원이 맞다.

③ X

- 15만 원은 고정비용을 세금으로 착각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15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고정비용이 아니라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인 10만 원이다.

④ X

- 20만 원은 최적 생산량이나 한계피해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20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MD(2) = 10$만 원이다.

⑤ X

- 30만 원은 $100 - 70$처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상수항 차이를 그대로 세금으로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30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그 차이로 생산량 $x^* = 2$를 먼저 구한 뒤 $5x$에 대입한 10만 원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고정비용 15만 원과 한계피해 함수 $5x$를 그대로 세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정세는 총피해나 고정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정적 생산 외부효과 문제는 먼저 $SMC = MC + MD$를 만든 뒤 $MB = SMC$로 최적 생산량을 구하고, 마지막에 그 생산량을 MD에 대입해 단위당 세금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피구세는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이다. 고정비용은 한계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실질 이자율이 가장 낮은 것은?

① 명목 이자율: 0%, 예상 인플레이션율: 1%

② 명목 이자율: 1%, 예상 인플레이션율: 0%

③ 명목 이자율: 2%, 예상 인플레이션율: 4%

④ 명목 이자율: 3%, 예상 인플레이션율: 1%

⑤ 명목 이자율: 3%, 예상 인플레이션율: -2%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셔 방정식을 이용해 각 선택지의 실질 이자율을 계산한 뒤 가장 낮은 값을 고르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각 선택지의 명목 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다.
구해야 할 값: 실질 이자율이다.
주의할 조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며,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실질 이자율은 낮아진다.

사용할 공식

피셔 방정식은 $i = r + \pi^e$ 이므로 실질 이자율은 $r = i - \pi^e$ 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명목 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주어졌고, 피셔 방정식 성립을 전제로 실질 이자율을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① $r = 0\% - 1\% = -1\%$ 이다.
② $r = 1\% - 0\% = 1\%$ 이다.
③ $r = 2\% - 4\% = -2\%$ 이다.
④ $r = 3\% - 1\% = 2\%$ 이다.
⑤ $r = 3\% - (-2\%) = 5\%$ 이다.
계산 결과 가장 낮은 실질 이자율은 -2% 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실질 이자율은 −1% 이다. 낮은 값이기는 하지만 ③의 −2% 보다 높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가장 낮은 것'의 후보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①은 두 번째로 낮은 실질 이자율이다.

② X
- 실질 이자율은 1% 이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0%라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같지만, 가장 낮은 값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②를 최저 실질 이자율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②의 실질 이자율은 양의 값이다.

③ O
- 실질 이자율은 2% − 4% = −2% 이다. 다섯 선택지 중 가장 작은 값이므로 정답이다.

④ X
- 실질 이자율은 2% 이다. ③의 −2% 보다 높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명목 이자율 3%만 보고 낮다고 판단하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예상 인플레이션율 1%를 빼서 2%로 비교해야 한다.

⑤ X
- 실질 이자율은 3% − (−2%) = 5% 이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이면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므로 실질 이자율이 높아진다. 틀린 표현은 −2%를 그대로 낮은 실질 이자율로 착각하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⑤의 실질 이자율은 5%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부호이다. 특히 ⑤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2% 이므로 3% − (−2%) 로 계산해야 하고, 실질 이자율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5%로 높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피셔 방정식 문제는 명목 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뺀 뒤, 계산된 실질 이자율끼리 비교한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이면 뺄셈의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실질 이자율 = 명목 이자율 -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다. 인플레이션 예상이 높으면 실질 이자율은 낮아지고, 디플레이션 예상은 실질 이자율을 높인다.

NoteBase

문 14. 화폐 및 화폐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② 이자율 상승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증가 요인이다.

③ 화폐는 가치척도의 기능, 교환 매개의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 등을 가진다.

④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로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를 들 수 있다.

⑤ 화폐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유동성 형태로 보유하고 싶어 하는지를 반영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화폐수요의 변화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과 화폐의 기능 및 보유 동기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폐수요는 사람들이 거래와 예비, 자산 선택의 이유로 현금이나 요구불예금처럼 유동성이 높은 형태로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이다.
화폐공급이 주어진 상태에서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화폐시장에서 초과수요가 생기므로 균형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은 화폐를 보유할 때 포기하는 수익이므로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화폐의 대표 기능은 가치척도, 교환 매개, 가치 저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이다.
- 실제로는 화폐공급이 일정할 때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이자율은 상승한다.

② O
- 이자율은 채권 등 이자 자산을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를 들고 있는 동안 포기하는 수익이 커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③ O
- 화폐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표시하는 가치척도 기능,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교환 매개 기능,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진다.

④ O
- 화폐수요의 전통적 동기는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로 구분된다. 거래와 비상 지출, 이자율 변화에 따른 자산 선택이 각각의 이유이다.

⑤ O
- 화폐수요는 사람들이 자산 중 어느 정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형태로 보유하려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유동성 선호와 관련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일반 재화의 수요 증가처럼 생각해 방향을 헷갈리게 만든다. 화폐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화폐의 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화폐공급에 비해 화폐가 부족해져 이자율이 상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폐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고 판단한다. 이자율 상승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증가, 이자율 하락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감소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화폐수요 증가 → 이자율 상승, 이자율 상승 → 화폐 보유 기회비용 증가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A국의 연도별 가격과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A국은 중간재 없이 두 재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재화는 모두 판매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구분	X재		Y재	
	가격(달러)	수량(개)	가격(달러)	수량(개)
2020년	1,000	100	2,000	100
2021년	1,200	90	2,400	120
2022년	1,500	80	3,000	130

① 2020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다.

② 2020년 X재 생산액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보다 작다.

③ 2022년 명목 GDP는 2021년보다 크다.

④ 2022년 실질 GDP는 2021년보다 크다.

⑤ 2022년 GDP 디플레이터는 2021년보다 크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준연도 가격을 이용한 실질 GDP, 해당 연도 가격을 이용한 명목 GDP,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해 선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명목 GDP는 해당 연도 가격과 해당 연도 수량을 곱해 합산한다.
실질 GDP는 기준연도인 2020년 가격과 해당 연도 수량을 곱해 합산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명목 GDP=Σ(해당 연도 가격×해당 연도 수량)
실질 GDP=Σ(기준연도 가격×해당 연도 수량)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 1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두 재화만 생산하고 기준연도가 2020년으로 주어졌으므로, 가격 효과와 수량 효과를 분리해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2020년 명목 GDP = 1,000×100 + 2,000×100 = 300,000이다.
2020년 실질 GDP = 1,000×100 + 2,000×100 = 300,000이다.
2021년 명목 GDP = 1,200×90 + 2,400×120 = 396,000이다.
2021년 실질 GDP = 1,000×90 + 2,000×120 = 330,000이다.
2022년 명목 GDP = 1,500×80 + 3,000×130 = 510,000이다.
2022년 실질 GDP = 1,000×80 + 2,000×130 = 340,000이다.
2021년 GDP 디플레이터 = 396,000/330,000×100 = 120이다.
2022년 GDP 디플레이터 = 510,000/340,000×100 = 15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2020년은 기준연도이므로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모두 300,000으로 같다.

② X
2020년 X재 생산액은 1,000×100 = 100,000이고, 2020년 명목 GDP는 300,000이므로 비중은 1/3이다. 2021년 X재 생산액은 1,200×90 = 108,000이고, 2021년 명목 GDP는 396,000이므로 비중은 약 27.3%이다. 따라서 2020년의 X재 비중은 2021년보다 작지 않고 더 크다. 틀린 표현은 "2020년 X재 생산액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보다 작다"이고, 올바르게는 "2020년 X재 생산액의 명목 GDP 비중은 2021년보다 크다"이다.

③ O
2022년 명목 GDP는 510,000이고 2021년 명목 GDP는 396,000이므로 2022년 명목 GDP가 더 크다.

④ O
2022년 실질 GDP는 340,000이고 2021년 실질 GDP는 330,000이므로 2022년 실질 GDP가 더 크다.

⑤ O
2022년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고 2021년 GDP 디플레이터는 120이므로 2022년 GDP 디플레이터가 더 크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생산액 비중과 생산액의 절대 크기를 구분하는 것이다. 2021년 X재 생산액 108,000은 2020년 100,000보다 크지만, 전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에 더 작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표가 나오면 먼저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구분한다. 기준연도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고, 다른 연도의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에 해당 연도 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비중 문제는 반드시 해당 항목 생산액을 전체 명목 GDP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명목은 현재가격, 실질은 기준연도 가격, 디플레이터는 명목/실질×100이다.

NoteBase

문 16.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물환율은 항상 현물환율보다 높게 결정된다.

② 구매력 평가설은 수출 규모를 측정하는 이론 모형이다.

③ 한국과 미국의 물가가 각각 3% 상승하고 명목환율의 변화가 없다면, 실질환율은 3% 상승한다.

④ 환율이 올라간 직후에는 순수출이 줄어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마셜-러너 조건이라고 한다.

⑤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면 한 국가의 금융 상품에 투자한 수익률은 환위험 헤징(hedging) 후 다른 국가의 금융 상품에 투자한 수익률과 동일하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율 결정 이론과 환율 변동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물환율은 미래 인도 조건으로 현재 계약하는 환율이며, 현물환율보다 항상 높거나 낮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로 장기 균형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에 양국 물가를 반영한 상대가격이며, 양국 물가가 같은 비율로 변하면 명목환율 불변 시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마셜-러너 조건은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 수출수요와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자율 평가설은 국제 금융자산 간 차익거래가 사라지도록 환위험 조정 후 수익률이 같아진다는 관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항상 현물환율보다 높게 결정된다"이다. 선물환율은 양국 이자율, 위험프리미엄, 시장의 차익거래 조건 등에 따라 현물환율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올바르게는 선물환율은 현물환율 대비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가 붙을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수출 규모를 측정하는 이론 모형"이다. 구매력 평가설은 동일한 구매력이 성립하도록 환율이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환율 결정 이론이다. 올바르게는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 균형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실질환율은 3% 상승한다"이다. 명목환율이 변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물가가 각각 같은 3%만큼 상승하면 상대물가가 변하지 않으므로 실질환율도 변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실질환율은 불변이라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마셜-러너 조건"이다. 환율 상승 직후 순수출이 감소하다가 시간이 지난 뒤 증가하는 현상은 J-곡선 효과이다. 올바르게는 마셜-러너 조건은 평가절하가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탄력성 조건이라고 해야 한다.

⑤ O
-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하면 국내 금융상품과 외국 금융상품 사이의 차익거래 기회가 사라진다. 특히 환위험을 선물환 등으로 헤지한 뒤의 수익률은 다른 국가의 금융상품 수익률과 같아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양국 물가가 모두 오른다는 사실만 보고 실질환율도 오른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실질환율은 한 나라 물가만이 아니라 상대물가를 반영한다. ④는 환율 변동 후 시간이 지나며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J-곡선 효과를 마셜-러너 조건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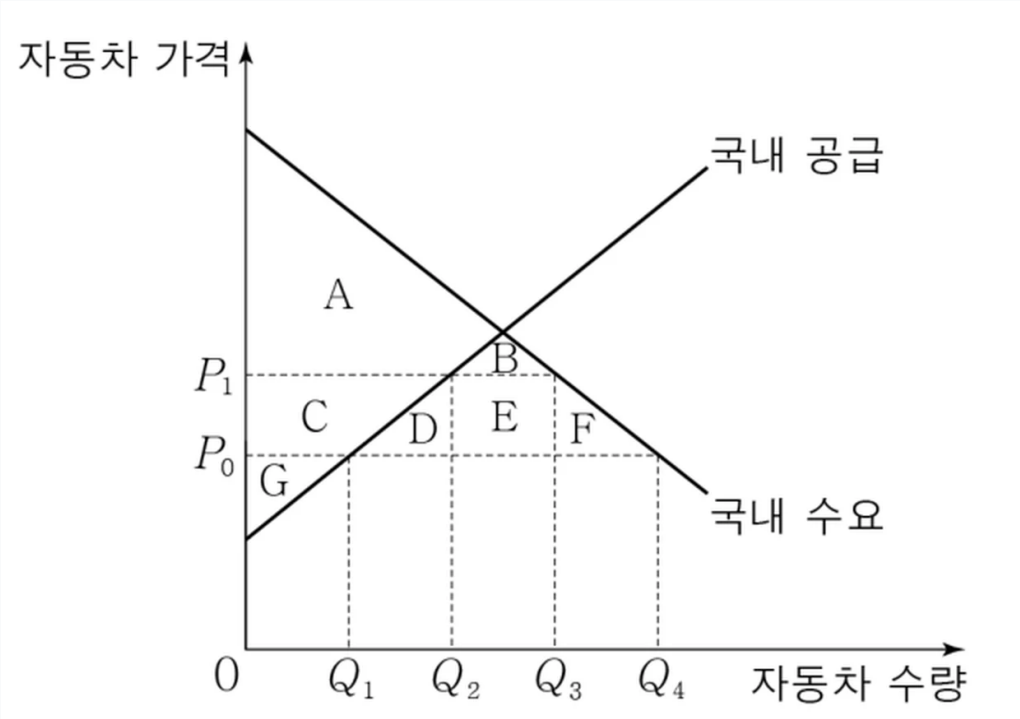
환율 문제는 먼저 용어의 역할을 나눈다. 선물환율은 미래 거래 가격, 구매력 평가설은 물가와 장기 환율, 실질환율은 상대물가 반영 환율, 마셜-러너 조건은 탄력성 조건, J-곡선은 시간 경과에 따른 무역수지 반응, 이자율 평가설은 헤지 후 금융수익률 균등 관계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PPP는 물가, 실질환율은 상대물가, 마셜-러너는 탄력성, J-곡선은 시간 지연, 이자율 평가설은 헤지 후 수익률 균등이다.

문 17. 갑국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단위당 $P_1 - P_0$만큼 관세를 부과하였고, 관세 부과 전의 국제가격은 P_0이었다. 갑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자동차는 국제가격 수준에서 무제한 수입이 가능하다.)



① 관세 부과 전 갑국의 국내 소비량은 Q_4이고, 생산량은 Q_1이다.

② 갑국 정부의 관세수입은 E이다.

③ 관세 부과 후 갑국의 소비자잉여는 $A + B$이고, 생산자잉여는 $C + G$이다.

④ 관세 부과로 인한 갑국의 사회적 순손실은 $B + D + F$이다.

⑤ 관세 부과 후 갑국의 국내 생산량은 Q_2이고, 국내 소비량은 Q_3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세 부과 전후의 수요·공급 그래프에서 국내 소비량, 국내 생산량, 관세수입,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사회적 순손실의 면적을 읽는 문제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1. 관세 전 국제가격은 P_0, 관세 후 국내가격은 P_1임을 확인한다.
2. 가격 P_0에서 국내 공급량은 Q_1, 국내 수요량은 Q_4이고, 가격 P_1에서 국내 공급량은 Q_2, 국내 수요량은 Q_3이다.
3. 관세수입은 관세액 $P_1 - P_0$에 수입량 $Q_3 - Q_2$를 곱한 면적 E이고, 사회적 순손실은 생산 왜곡 D와 소비 왜곡 F의 합이다.

핵심 근거

관세 전에는 세계가격 P_0에서 무제한 수입이 가능하므로 국내 소비량은 수요곡선이 P_0와 만나는 Q_4, 국내 생산량은 공급곡선이 P_0와 만나는 Q_1이다. 관세 후에는 국내가격이 P_1로 올라 국내 생산량은 Q_2, 국내 소비량은 Q_3이 된다. 관세수입은 수입량 구간 Q_2에서 Q_3까지의 가격 차이 면적 E이고, 관세로 인한 사회적 순손실은 이전되지 않고 사라지는 D+F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근거 위치: P_0 수평선과 국내 수요곡선·국내 공급곡선의 교점이다.
- 관세 전 국내 소비량은 Q_4, 국내 생산량은 Q_1이므로 옳다.

② O
- 근거 위치: P_1과 P_0 사이, Q_2와 Q_3 사이의 사각형 E이다.
- 관세수입은 단위당 관세 $P_1 - P_0$에 관세 후 수입량 $Q_3 - Q_2$를 곱한 값이므로 E가 맞다.

③ O
- 근거 위치: 관세 후 국내가격 P_1에서 수요곡선 아래·가격선 위 면적 A+B, 공급곡선 위·가격선 아래 면적 C+G이다.
- 관세 후 소비자잉여는 A+B이고, 생산자잉여는 기존 생산자잉여 G에 가격 상승으로 얻는 C가 더해진 C+G이므로 옳다.

④ X
- 근거 위치: 관세 후 사회적 순손실은 생산 왜곡 삼각형 D와 소비 왜곡 삼각형 F이다.
- 틀린 표현은 "B+D+F"이다. 올바르게는 관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 순손실은 D+F이다. B는 관세 후에도 소비자잉여에 남는 부분이므로 순손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O
- 근거 위치: P_1 수평선과 국내 공급곡선·국내 수요곡선의 교점이다.
- 관세 후 국내 생산량은 Q_2, 국내 소비량은 Q_3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관세 후에도 남아 있는 소비자잉여 B를 사회적 순손실에 포함시킨 것이 함정이다. 관세의 사회적 순손실은 정부나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면적이 아니라 시장 왜곡으로 사라지는 생산 왜곡 D와 소비 왜곡 F만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세 문제에서는 먼저 관세 전후 가격선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읽고, 소비자잉여 감소분을 생산자잉여 증가분, 정부수입, 순손실로 나누어 본다. 순손실은 항상 국내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늘어 생기는 왼쪽 삼각형과 소비가 줄어 생기는 오른쪽 삼각형을 합한 면적이다.

암기 포인트

관세수입은 수입량 구간의 사각형, 관세 순손실은 양쪽 삼각형이다. 이 그림에서는 관세수입 E, 순손실 D+F이다.

NoteBase

문 18. A국에는 2개의 은행이 있고, 지급준비율을 제1 은행은 20%, 제2 은행은 10%로 항상 유지한다. 甲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제1 은행에 예금하였고, 제1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乙에게 대출하였다. 乙은 대출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여 丙에게서 물품을 구입하였다. 丙은 이 대금을 전액 제2 은행에 예금하였고, 제2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전액을 丁에게 대출하였다. 이상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된 통화량은 얼마인가?

① 152만 원

② 142만 원

③ 132만 원

④ 122만 원

⑤ 112만 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은행별 지급준비율을 적용해 대출 가능액과 최종 통화량 증가분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제1 은행 지급준비율 20%, 제2 은행 지급준비율 10%, 갑의 기존 현금 100만 원.
구해야 할 값: 전체 거래 후 추가적으로 창출된 통화량.
주의할 조건: 갑이 원래 보유하던 현금 100만 원은 기존 통화이므로 최종 통화량에서 빼야 한다.

사용할 공식

대출 가능액은 예금액 × (1-지급준비율)이다.
통화량은 민간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합해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예금 중 지급준비금은 은행에 남고, 나머지만 대출되어 새로운 예금이나 민간 보유 현금을 만들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갑이 제1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제1 은행은 지급준비금 20만 원을 보유하고 을에게 80만 원을 대출한다.
2. 을이 그 80만 원으로 병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병이 80만 원 전액을 제2 은행에 예금한다.
3. 제2 은행은 80만 원의 10%인 8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72만 원을 정에게 대출한다.
4. 최종적으로 민간의 예금은 갑의 100만 원과 병의 80만 원을 합해 180만 원이고, 정이 보유한 대출금 72만 원도 민간 보유 현금으로 통화에 포함된다.
5. 최종 통화량은 180만 원 + 72만 원 = 252만 원이다.
6. 기존에 갑이 보유하던 현금 100만 원은 이미 존재하던 통화이므로 추가 창출분은 252만 원 - 100만 원 = 152만 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추가적으로 창출된 통화량은 152만 원이므로 맞다.
② X: 142만 원이 아니라 152만 원이다. 최종 통화량 252만 원에서 기존 현금 100만 원만 빼야 한다.
③ X: 132만 원이 아니라 152만 원이다. 제2 은행의 대출 가능액 72만 원을 통화량에 포함해야 한다.
④ X: 122만 원이 아니라 152만 원이다. 제1 은행의 대출 80만 원이 제2 은행 예금으로 이어지고, 다시 72만 원의 대출이 발생한다.
⑤ X: 112만 원이 아니라 152만 원이다. 지급준비금 20만 원과 8만 원은 대출되지 않지만, 예금 180만 원과 정이 보유한 72만 원은 통화량 계산에 반영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대출액만 보거나, 최종 통화량 252만 원을 그대로 답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이 문제는 최종 통화량이 아니라 기존 100만 원에 비해 추가로 창출된 통화량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은행별로 예금액, 지급준비금, 대출액을 차례로 적고, 마지막에 민간 보유 현금과 예금을 합한 뒤 기존 통화를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추가 창출 통화량 = 최종 통화량 - 처음부터 있던 통화량이다.

NoteBase

문 19.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경제정책의 내부시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ㄴ. 경기 회복기에는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ㄷ. 이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누진적 소득세제와 실업 보험 제도가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총수요를 완충하는 제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는 정부가 매번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아도 경기 상황에 따라 조세 수입이나 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변해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장치이다.
경기 과열기에는 세금 부담 증가와 이전지출 감소로 총수요를 억제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세금 부담 감소와 이전지출 증가로 총수요를 뒷받침한다.
대표 사례는 누진적 소득세제와 실업 보험 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O: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기 상황에 따라 조세와 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변해 재정정책의 내부시차를 줄인다. 새로운 예산 편성이나 법 개정 같은 결정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작동한다.
ㄴ O: 경기 회복기에는 소득과 고용이 늘면서 세수가 증가하고 실업급여 같은 이전지출은 줄어 총수요 확대를 억제하므로 경기 회복이 과열로 치닫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ㄷ O: 누진적 소득세제는 소득 증가 시 평균 세부담을 높이고 소득 감소 시 세부담을 낮추므로 자동 안정화 장치에 해당한다. 실업 보험 제도도 경기 침체기에 실업급여 지출을 늘려 가계소득 감소를 완충하므로 자동 안정화 장치에 해당한다.
① X: ㄱ만 고른 선택지이다. ㄴ과 ㄷ도 옳으므로 틀린 표현은 'ㄱ'이고,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② X: ㄴ만 고른 선택지이다. ㄱ과 ㄷ도 옳으므로 틀린 표현은 'ㄴ'이고,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③ X: ㄱ, ㄷ만 고른 선택지이다. ㄴ도 옳으므로 틀린 표현은 'ㄱ, ㄷ'이고,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④ X: ㄴ, ㄷ만 고른 선택지이다. ㄱ도 옳으므로 틀린 표현은 'ㄴ, ㄷ'이고,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⑤ O: ㄱ, ㄴ, ㄷ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자동 안정화 장치를 경기 침체기에만 도움이 되는 장치로 좁게 이해하면 ㄴ을 놓치기 쉽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침체기에는 경기를 받치고 회복기·호황기에는 과열을 누그러뜨리는 양방향 완충 장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의 추가 재량 결정 없이 소득, 고용, 세수, 이전지출이 경기와 함께 자동으로 변하는지를 먼저 본다. 누진세와 실업급여처럼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총수요를 완충하면 자동 안정화 장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동 안정화 장치는 '누진세와 실업급여가 경기 변동을 자동으로 완충한다'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0. A국과 B국의 총수요와 총공급 변동에 따른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A국: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B국: 총수요 곡선은 좌측, 총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① A국은 물가가 상승한다.

② A국은 실질 GDP가 감소한다.

③ B국은 물가가 하락한다.

④ B국은 실질 GDP가 증가한다.

⑤ A국과 B국 모두 실업률이 상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동시에 이동할 때 물가와 실질 GDP 중 어느 변수가 확정적으로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좌측 이동은 총수요 감소, 우측 이동은 총수요 증가를 뜻한다.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므로 좌측 이동은 총공급 감소, 우측 이동은 총공급 증가를 뜻한다.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산출량은 확정적으로 변하지만 물가는 불확정적이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확정적으로 변하지만 산출량은 불확정적이다.
제시된 조건에서 A국은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이므로 실질 GDP는 확정적으로 증가하고 물가는 불확정적이며, B국은 총수요곡선이 좌측·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이므로 물가는 확정적으로 하락하고 실질 GDP는 불확정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국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총수요 증가는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총공급 증가는 물가를 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하므로 두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물가의 방향은 확정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물가가 상승한다'이다. 올바르게는 'A국의 물가 변화는 불확정적이다'이다.

② X
A국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두 효과 모두 산출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균형 산출량, 즉 실질 GDP는 확정적으로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실질 GDP가 감소한다'이다. 올바르게는 'A국의 실질 GDP는 증가한다'이다.

③ O
B국은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총수요 감소는 물가를 낮추고, 총공급 증가도 물가를 낮추므로 두 효과가 모두 물가 하락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B국은 물가가 하락한다.

④ X
B국에서 총수요 감소는 실질 GDP를 감소시키지만 총공급 증가는 실질 GDP를 증가시킨다. 두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이므로 실질 GDP의 변화는 어느 이동 폭이 큰지에 따라 달라진다. 틀린 표현은 '실질 GDP가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B국의 실질 GDP 변화는 불확정적이다'이다.

⑤ X
실업률은 오쿤의 법칙에 따라 실질 GDP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A국은 실질 GDP가 증가하므로 오히려 실업률 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B국은 실질 GDP 변화가 불확정적이므로 실업률 방향도 확정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A국과 B국 모두 실업률이 상승한다'이다. 올바르게는 'A국의 실업률은 하락 압력을 받고, B국의 실업률 변화는 불확정적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곡선 두 개가 동시에 이동할 때 한 변수만 확정되고 다른 변수는 이동 폭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A국처럼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면 실질 GDP는 증가하지만 물가는 불확정적이고, B국처럼 총수요는 좌측·총공급은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하락하지만 실질 GDP는 불확정적이다. 이동 방향을 반대로 읽으면 ①②⑤의 정오 판정 근거가 통째로 뒤집히므로 제시문의 좌측·우측 표기를 먼저 정확히 확인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수요·총공급 동시 이동 문제에서는 먼저 각 곡선 이동이 물가와 산출량에 주는 방향을 각각 적는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변수는 확정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변수는 이동 폭이 주어지지 않는 한 불확정적이다. 실업률을 묻는 선지는 산출량 방향이 확정된 경우에만 반대 방향으로 확정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AD·AS 같은 방향 이동은 GDP 확정, 물가 불확정이다. AD·AS 반대 방향 이동은 물가 확정, GDP 불확정이다.

NoteBase

문 21. 어느 한 국가의 기대를 반영한 필립스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π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π^e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μ는 실업률이다.)

$\pi = \pi^e - 0.5\mu + 2.2$

<보 기>
ㄱ. 잠재 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4.4%이다.
ㄴ. 잠재 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이 아니다.
ㄷ.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장기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ㄹ. 실제 실업률이 5%이면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를 반영한 필립스곡선 $\pi = \pi^e - 0.5\mu + 2.2$에서 자연실업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율 변화의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π,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π^e, 실업률은 μ이다.
구해야 할 값: 잠재 GDP에 대응하는 실업률, 즉 자연실업률과 각 보기의 옳고 그름이다.
주의할 조건: 장기균형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같아 $\pi = \pi^e$가 된다.

사용할 공식

$\pi = \pi^e - 0.5\mu + 2.2$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기대를 반영한 필립스곡선이 직접 주어졌고, 잠재 GDP에 대응하는 실업률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실현되는 장기균형 조건 $\pi = \pi^e$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장기균형 조건을 적용하면 $\pi = \pi^e$이다.
2. 식에 대입하면 $\pi^e = \pi^e - 0.5\mu + 2.2$가 된다.
3. 양변에서 π^e를 제거하면 $0 = -0.5\mu + 2.2$이다.
4. 따라서 $0.5\mu = 2.2$, $\mu = 4.4$이다.
5. 실제 실업률이 5%이면 $\pi = \pi^e - 0.5 \times 5 + 2.2 = \pi^e - 0.3$이므로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

선지 판단

① X
- ①은 ㄱ, ㄴ을 고른 선택지이다. ㄱ은 맞지만 ㄴ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틀린 포함: ㄴ의 "자연 실업률이 아니다" → 올바르게는 잠재 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이다.

② O
- ②는 ㄱ, ㄹ을 고른 선택지이다. ㄱ은 $\pi = \pi^e$를 대입해 구한 자연실업률이 4.4%이므로 맞고, ㄹ은 $\mu = 5$일 때 $\pi = \pi^e - 0.3$이므로 맞다.

③ X
- ③은 ㄷ, ㄹ을 고른 선택지이다. ㄹ은 맞지만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틀린 포함: ㄷ의 "장기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올바르게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단기 필립스곡선을 위쪽으로 이동시키며,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인 상태로 그대로이다.

④ X
- ④는 ㄱ, ㄴ, ㄷ을 고른 선택지이다. ㄱ만 맞고 ㄴ과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틀린 포함: ㄴ은 잠재 GDP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 아니라고 한 점이 틀리고, ㄷ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변화가 장기 필립스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한 점이 틀리다.

⑤ X
- ⑤는 ㄴ, ㄷ, ㄹ을 고른 선택지이다. ㄹ은 맞지만 ㄴ과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틀린 포함: ㄴ의 올바른 표현은 "잠재 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이다"이고, ㄷ의 올바른 표현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단기 필립스곡선을 위쪽으로 이동시킨다"이다.

계산 결과 옳은 설명은 ㄱ, 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잠재 GDP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과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ㄴ, 기대 인플레이션율 변화가 장기 필립스곡선까지 이동시킨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ㄷ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단기 필립스곡선의 위치를 바꾸지만, 장기 필립스곡선의 위치는 자연실업률로 결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대가 포함된 필립스곡선에서 자연실업률을 묻는 경우에는 먼저 $\pi = \pi^e$를 놓고 실업률을 구한다. 그다음 실제 실업률을 식에 직접 대입해 π가 π^e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장기균형은 $\pi = \pi^e$,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변화는 단기 필립스곡선을 이동시킨다.

NoteBase

문 22. A국과 B국은 노동만을 사용하여 옷감과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다. 양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하며, 옷감과 포도주 각각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	옷감	포도주
A국	4	6
B국	16	8

<보기>

ㄱ. A국은 옷감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ㄴ. 포도주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A국보다 크다.

ㄷ. 옷감 1단위와 포도주 3단위를 교환하는 조건이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노동투입량으로 각 재화의 기회비용을 계산한 뒤 비교우위와 교역조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국은 옷감 1단위에 노동 4, 포도주 1단위에 노동 6이 필요하다.
B국은 옷감 1단위에 노동 16, 포도주 1단위에 노동 8이 필요하다.
노동투입량이 적을수록 절대우위가 있고, 기회비용이 낮을수록 비교우위가 있다.

사용할 공식

옷감 1단위의 기회비용은 (옷감 1단위 노동투입량)/(포도주 1단위 노동투입량) 포도주이다.
포도주 1단위의 기회비용은 (포도주 1단위 노동투입량)/(옷감 1단위 노동투입량) 옷감이다.
교역조건은 수출국의 기회비용보다 유리하고 수입국의 국내 생산비보다 유리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A국의 옷감 1단위 기회비용은 4/6 = 2/3단위 포도주이고, 포도주 1단위 기회비용은 6/4 = 3/2단위 옷감이다.
B국의 옷감 1단위 기회비용은 16/8 = 2단위 포도주이고, 포도주 1단위 기회비용은 8/16 = 1/2단위 옷감이다.
따라서 옷감은 기회비용이 더 낮은 A국에 비교우위가 있고, 포도주는 기회비용이 더 낮은 B국에 비교우위가 있다.
상호 이익이 되는 옷감의 상대가격은 2/3단위 포도주보다 크고 2단위 포도주보다 작아야 한다. 옷감 1단위와 포도주 3단위의 교환은 옷감 1단위 가격이 포도주 3단위라는 뜻이므로 이 범위를 벗어난다.

NoteBase

선지 판단

ㄱ. O
A국의 옷감 1단위 기회비용은 포도주 2/3단위이고 B국은 포도주 2단위이다. 옷감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A국이 옷감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옳다.

ㄴ. X
포도주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옷감 3/2단위, B국이 옷감 1/2단위이다. 따라서 B국의 포도주 기회비용은 A국보다 큰 것이 아니라 작다. 틀린 표현은 'B국이 A국보다 크다'이고, 올바르게는 'B국이 A국보다 작다'이다.

ㄷ. O
옷감 1단위의 상호 이익 교역조건은 포도주 2/3단위 초과, 2단위 미만이어야 한다. 옷감 1단위와 포도주 3단위를 교환하면 B국은 옷감 1단위를 얻기 위해 포도주 3단위를 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포도주 2단위만 포기하면 옷감 1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B국에 불리하므로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X
ㄱ만 옳다고 보지만 ㄷ도 옳다. 틀린 표현은 'ㄱ만'이고,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② X
ㄴ은 포도주 기회비용의 대소를 반대로 서술했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ㄴ'이고,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③ O
ㄱ과 ㄷ이 옳고 ㄴ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④ X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틀린 표현은 'ㄴ, ㄷ'이고,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⑤ X
ㄴ이 틀리므로 ㄱ, ㄴ, ㄷ이 모두 옳다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ㄱ, ㄴ, ㄷ'이고,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노동투입량이 적은 절대우위와 기회비용이 낮은 비교우위를 혼동하기 쉽다. 또 ㄷ에서는 A국 입장만 보면 포도주 3단위를 받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B국은 국내에서 포도주 2단위만 포기해도 옷감 1단위를 만들 수 있으므로 교역에 응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투입량 표가 나오면 먼저 각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을 상대 재화 단위로 바꾼다. 비교우위는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판단하고,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비교우위는 생산량이 아니라 기회비용이다.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무역이 성립한다.

NoteBase

문 23. 다음의 거시경제 모형에서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투자 수요를 얼마나 증가시켜야 하는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Y_F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다.)

$Y = C + I$
$C = 200 + 0.8Y$
$I = 200$
$Y_F = 3,000$

① 1,000
② 1,100
③ 1,200
④ 1,300
⑤ 1,4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케인즈식 단순 거시경제 모형에서 현재 균형국민소득을 구한 뒤 완전고용 국민소득과의 부족분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Y = C + I$, $C = 200 + 0.8Y$, 현재 $I = 200$, 완전고용 국민소득 $Y_F = 3,000$이다.
구해야 할 값: 완전고용 국민소득 3,000에 도달하기 위해 메워야 하는 국민소득 부족분이다.
주의할 조건: 소비함수의 한계소비성향은 0.8이므로 현재 균형국민소득을 먼저 구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현재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산출이 일치하는 조건 $Y = C + I$에서 구한다.
$Y = (200 + 0.8Y) + 2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폐쇄경제 단순모형의 국민소득 항등식과 소비함수, 현재 투자 I가 직접 주어졌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현재 균형국민소득을 계산한다.

$Y = 200 + 0.8Y + 200$

2. Y항을 정리한다.

$0.2Y = 400$

3. 현재 균형국민소득은 다음과 같다.

$Y = 2,000$

4.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현재 균형국민소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Y_F - Y = 3,000 - 2,000 = 1,000$

따라서 완전고용 국민소득까지 부족한 국민소득은 1,000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 완전고용 국민소득 3,000과 현재 균형국민소득 2,000의 차이는 1,000이므로 정답이다.

② X

- 1,100은 $3,000 - 2,000$의 결과가 아니다.
- 틀린 표현 1,100 → 올바르게는 1,000이다.

③ X

- 1,200은 현재 균형국민소득을 구한 뒤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비교한 값이 아니다.
- 틀린 표현 1,200 → 올바르게는 1,000이다.

④ X

- 1,300은 완전고용 국민소득 3,000에서 현재 균형국민소득 2,000을 뺀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1,300 → 올바르게는 1,000이다.

⑤ X

- 1,400은 주어진 소비함수와 투자값으로 계산되는 국민소득 부족분이 아니다.
- 틀린 표현 1,400 → 올바르게는 1,000이다.

계산 결과 부족한 국민소득은 1,000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현재 균형국민소득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완전고용 국민소득 3,000과 보기 숫자를 바로 연결하는 것이다. 먼저 $Y = C + I$에 $C = 200 + 0.8Y$, $I = 200$을 대입해 현재 균형국민소득 2,000을 구한 뒤 $Y_F - Y$를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순 거시경제 모형에서 완전고용 달성 문제는 현재 균형소득 계산 → 완전고용소득과의 차이 계산 → 보기 대조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현재 균형소득은 $Y = C + I$에서 먼저 구하고, 완전고용 갭은 $Y_F - Y$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24. 소규모 폐쇄경제인 A국의 X재에 대한 수요 곡선은 $Q^D = 500 - P$, 공급 곡선은 $Q^S = -100 + P$이고, 국제가격이 400이다. A국의 경제를 개방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는 X재의 수요량, Q^S는 X재의 공급량, P는 X재의 가격이다.)

① A국의 X재 공급량은 감소한다.

② A국은 X재를 수입하게 된다.

③ A국의 소비자잉여는 10,000이 된다.

④ A국에서 X재의 국내 거래량은 증가한다.

⑤ A국의 총잉여는 개방 전보다 10,000만큼 증가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폐쇄경제 균형과 국제가격 개방 후의 국내 소비량, 국내 공급량, 무역량,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Q^D = 500 - P$, 공급곡선은 $Q^S = -100 + P$이다.
폐쇄경제에서는 $Q^D = Q^S$로 국내 균형을 구한다.
개방 후 소규모 국가는 국제가격 400을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국내가격은 400이 된다.

사용할 공식

폐쇄경제 균형은 $Q^D = Q^S$이다.
개방 후에는 $Q^D(P_w)$, $Q^S(P_w)$를 각각 계산한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 가격선 위의 삼각형 면적이고, 생산자잉여는 가격선 아래, 공급곡선 위의 삼각형 면적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선형 수요·공급에서 가격 변화가 거래량과 잉여의 삼각형 면적을 직접 결정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폐쇄경제 균형은 $500 - P = -100 + P$이므로 $P = 300$, $Q = 200$이다.
2. 개방 후 국제가격이 400이면 $Q^D = 500 - 400 = 100$, $Q^S = -100 + 400 = 300$이다.
3. 국내 공급량 300이 국내 수요량 100보다 크므로 A국은 200만큼 수출한다.
4. 소비자잉여는 개방 전 $\frac{1}{2} \times (500 - 300) \times 200 = 20,000$, 개방 후 $\frac{1}{2} \times (500 - 400) \times 100 = 5,000$이다.
5. 생산자잉여는 개방 전 $\frac{1}{2} \times (300 - 100) \times 200 = 20,000$, 개방 후 $\frac{1}{2} \times (400 - 100) \times 300 = 45,000$이다.
6. 총잉여는 개방 전 40,000, 개방 후 50,000이므로 10,000만큼 증가한다.

선지 판단

① X
국제가격 400은 폐쇄경제 균형가격 300보다 높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200에서 300으로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공급량은 감소한다"이고, 올바르게는 "공급량은 증가한다"이다.

② X
개방 후 $Q^S = 300$, $Q^D = 100$이므로 국내 공급량이 국내 수요량보다 200 크다. 따라서 A국은 X재를 수입하지 않고 수출한다. 틀린 표현은 "수입하게 된다"이고, 올바르게는 "수출하게 된다"이다.

③ X
개방 후 소비자잉여는 $\frac{1}{2} \times (500 - 400) \times 100 = 5,000$이다. 틀린 표현은 "소비자잉여는 10,000"이고, 올바르게는 "소비자잉여는 5,000"이다.

④ X
개방 전 국내 거래량은 균형수량 200이고, 개방 후 국내 소비량은 100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거래량은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국내 거래량은 증가한다"이고, 올바르게는 "국내 거래량은 감소한다"이다.

⑤ O
총잉여는 개방 전 소비자잉여 20,000과 생산자잉여 20,000의 합인 40,000이다. 개방 후 총잉여는 소비자잉여 5,000과 생산자잉여 45,000의 합인 50,000이다. 따라서 A국의 총잉여는 개방 전보다 10,000만큼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국제가격 400이 폐쇄경제 균형가격 300보다 높다는 점을 놓치면 수입국과 수출국을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잉여 10,000처럼 가격 상승 후의 삼각형 높이와 밑변을 잘못 잡으면 총잉여 증가분도 틀리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규모 개방경제 문제는 먼저 폐쇄경제 균형가격을 구한 뒤 국제가격과 비교한다. 국제가격이 국내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수출국, 낮으면 수입국으로 판단하고, 그 국제가격에서 수요량·공급량·잉여를 다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국제가격이 국내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가격 상승, 소비 감소, 생산 증가, 수출 발생, 총잉여 증가가 함께 나타난다.

NoteBase

문 25. 갑국의 실업률은 2021년에 2020년보다 상승하였지만, 2022년에는 2021년과 같았다. 갑국의 고용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고,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다.)

① 2021년 취업자 수는 2020년보다 많다.

② 2021년 고용률은 2020년보다 상승하였다.

③ 2022년 고용률은 2021년보다 하락하였다.

④ 2022년 취업자 수는 2021년보다 적다.

⑤ 2022년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21년보다 상승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와 분자를 구분하여 취업자 수와 비율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1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는 변함이 없다.
구해야 할 값: 취업자 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도별 변화이다.
주의할 조건: 실업률은 2021년에 2020년보다 상승하고, 2022년에는 2021년과 같다. 경제활동인구가 일정하면 실업률 변화는 실업자 수 변화와 같은 방향이고, 취업자 수 변화와는 반대 방향이다.

사용할 공식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100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 100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1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와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를 따로 제시하고, 각 지표가 어느 분모를 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경제활동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2021년 실업률이 2020년보다 상승했으므로 2021년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2. 2022년 실업률이 2021년과 같고 경제활동인구도 같으므로 2022년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는 2021년과 같다.
3. 2022년의 취업자 수는 2021년과 같지만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므로 고용률은 하락한다.
4. 2022년의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과 같지만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므로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2021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일정한데 실업률이 상승했으므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취업자 수는 2020년보다 많다"이고, 올바르게는 2021년 취업자 수는 2020년보다 적다.

② X
- 2021년 취업자 수는 2020년보다 감소하고,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한다. 따라서 고용률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한다. 틀린 표현은 "고용률은 2020년보다 상승하였다"이고, 올바르게는 2021년 고용률은 2020년보다 하락하였다.

③ O
- 2022년 실업률은 2021년과 같고 경제활동인구도 변함이 없으므로 취업자 수는 2021년과 같다. 그러나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므로 고용률은 2021년보다 하락한다.

④ X
- 2022년과 2021년의 실업률이 같고 경제활동인구도 같으므로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도 같다. 틀린 표현은 "취업자 수는 2021년보다 적다"이고, 올바르게는 2022년 취업자 수는 2021년과 같다.

⑤ X
-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2022년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과 같고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틀린 표현은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21년보다 상승하였다"이고, 올바르게는 2022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보다 하락하였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실업률의 상승을 곧바로 취업자 수 증가나 고용률 상승으로 착각하게 하는 데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므로 분모와 분자가 서로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용지표 문제는 먼저 경제활동인구가 변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의 변화를 나누어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사용한다는 점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실업률은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은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이다.

NoteBase